

# 전남도립대-나주시, 평생직업교육 협약

## 나주시민 대상 커피바리스타 교육과정 운영 수료생 취·창업·대학 진학 연계도 지원 중

전남도립대학교(총장 김대중)는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커피바리스타(핸드드립마스터) 평생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지난달 초 나주시와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관 거버넌스 구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과정은 전남도립대학교가 강사, 교육운영을 지원하고 나주시는 교육장소 제공, 교육생 모집과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학-지자체 평생직업

교육 상생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립대학교는 교육 수료생 사후관리를 위한 취·창업, 대학 진학 연계도 지원 중이다.

전남도립대학교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는 지난해 하반기 20개 평생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민 365명이 수강했고, 8개 동계 프로그램에 142명이 참여했다.

김대중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재취업, 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겠다"며 "자격증 취득



과정, 전문직업과정 등 '후진학' 친화적 교육환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전라남도가 설립한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으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자율개선대

학에 선정됐다.

지난해 교육부 '후진학선도대학(평생교육거점센터)'에 선정되는 등 대학평가 우수대학 9관왕을 차지해 '취업교육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허성은 기자

## 동구, 총장로1가 간판개선 사업 추진

광주 동구가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장로1가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시비 등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총장로1가 입구부터 총장로우체국까지 53개 건물 119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건물입면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동구는 1업소 1간판(곡각은 2간판)을 원칙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한 기존의 돌출·세로·지주이용간판을 떼어내고 업소별 특성에 맞게 디자인 한 새 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 서구, 상반기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92개 제공

광주 서구 공공일자리 사업이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구는 이날부터 6월26일까지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공공일 자리를 제공,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서구일자리센터운영,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등 18개 사업에 27명이 참여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맞춤 일자리 발굴에 초점을 맞춰 두드림서구평생학습관 관리, 도로안전지킴이, 광주천 생태단지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65명이 참여한다.

## 남구, 신종 코로나 차단 위해 살균 소독

광주 남구는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확진 환자 증가에 따라 3월말까지 관내 시내버스 회차지 3곳과 효천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이곳에 휴대용 방역장비 및 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따뜻한 기온이 이어짐에 따라 모기 등 곤충매개에 의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16개동 방역 취약지역 497개소에 대한 해방기 방역도 병행하기로 했다.

남구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송암동 2곳 및 덕남동 1곳에 마련된 시내버스 회차지 3곳과 효천역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북구,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

광주 북구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예산액 8043억 원 중 7437억 원을 집행해 재정집행 목표인 84.5%를 웃도는 92.46%의 집행률을 달성하면서 9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북구는 그동안 주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생활SOC 사업 등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했다.

## 광산구,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개설

광주 광산구는 지난 3일 구청에서 주민과 공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광산ON(온)' 앱(APP)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산ON은 광산구 시민소통 채널 중 하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책 제안 등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는 앱 안에서 20일 동안 공감 50표 이상을 받으면, 30일간 다른 시민들과 공유·검토하는 논의단계를 거쳐 광산구 관련 부서로 보내진다.

임형택 기자

## 광주 올겨울 적설량 '0'...1938년 기상관측 이래 처음

### 평년보다 높은 기온 내일 오전 '눈 예보'

"1월이 지나도록 눈이 쌓이지 않은 겨울은 처음이네요."

올겨울 광주에서 눈이 실종됐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가장 최근 광주에서 적설이 기록된 날은 지난해 1월31일이다.

이후 1년 넘게 눈이 날리지만 할 뿐 쌓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전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역, 광주에 한때 눈이 내렸지만 적설량은 '0'이었다.

지난해 12월에도 여섯 차례(3·5·20·26·27·31일) 진눈깨비나 소낙눈, 싸락눈이 내리는 데 그쳤고 1월엔 눈이 관측된 날은 하루도 없었다.

1938년 기상업무 시작한 광주기상청에서 2월이 되도록 적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적설량 '0'의 배경에는 평년(1981~2010년)보다 높은 겨울기온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1월 광주지역 평균기온은 4.6도로 평년(0.6도)보다 4.0도나 높았고, 12월 평균기온도 평년(3.1도)보다 1.5도 높은 4.8도를 기록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해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유입될 때 눈이 내린다"며 "올겨울 대륙고기압이 예년만큼 확장하지 못해 눈이 내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레 없는 '무적설' 기록은 5일 오전 무렵 깨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3일 오후부터 찬 공기를 머금은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5일 오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 광주시 '1월의 공무원'에 신영환 주무관 선정

###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국가사업 추진 확정



광주시는 '1월의 공무원'에 5·18선양과 신영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 주무관은 10년 간 끌어온 옛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의 국가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 확정 등 민선7기 공약 2건을 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2010년부터 법무부 소유 광주교도소 부지를 국가에서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국유지를 유상양여 후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가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 주무관은 정부 설득노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수십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5·18사적지라는 광주의 특성을 강조하고 정부를 적극 설득했다.

그 결과 사적지 보존 공간 확보는 물론 원형복원이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11일 경제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비 115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발표를 이끌어 냈다.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유지 매입비와 공사비로 들어가야 했던 예산 약 1000억원과 민주인권 기념파크가 조성된 이후 매년 관리 인력과 운영비로 들어갈 12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그는 또 2019년 4월 청와대, 행안부, 보훈처, 국방부, 광주시 등 5개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광주 유치를 결정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립트라우

마 치유센터가 건립되면 법 제정과 건축공사 등 약 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더 이상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방지하지 않도록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로 확대·운영하는 결정을 끌어냈다.

이를 통해 시비로만 운영해오던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20년부터 국비 6억2000만원을 신규 지원 받아 4년 동안 국비 25억원을 확보, 시비 16억원을 절감했다.

신 주무관은 "10년 간 끌어온 숙원사업인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해 시비를 크게 절감하고, 광주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들어서면서 광주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시작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끼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로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예외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제 결실추진위원회

한국노인진흥재단  
Korea Senior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노년에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건강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령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하위
1.1배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